디아나의 노래 <Digital Dreams, Analogue Desires>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7.9 7.29
● 참여작가 : 강용면 강홍구 김종구 노상균 아타김 양주혜 육근병 이순종 임영길 정동암 코디최 황인기 홍명섭 홍승혜(14명)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7.9 7.29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의 중간 세대인 40대 작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적, 혹은 아날로그적 작품들 사이의 긴장과 섞임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전시다. 전시 제목의 <디아나(DiAna)>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이면서 동시에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달과 사냥, 그리고 출산을 담당하는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다. 달은 사이버 스페이스의 비현실 세계, 곧 꿈의 세계를 은유하고 사냥과 출산은 현실의 삶과 욕망을 은유한다.

이번에 출품되는 작품들의 대부분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에 관련되어 있다. 디지털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창출하였지만 이를 보여주는 방식은 아날로그적 전통을 고수한다거나, 디지털 이미지를 모방하였으되 아날로그 과정과 질료를 활용하여 이를 구체화시킨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컴퓨터 작업을 거친 뒤 프로젝터로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은 보다 진일보된 디지털 과정을 보여준다. 프로그래밍 과정 자체를 예술작업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순수 디지털 작업과 이 작업의 맞은 편에 위치하는 순수 아날로그작업이 전시스펙트럼의 가장자리가 된다.

한편 이 전시는 한국의 40대 작가들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계론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매체간, 세대간의 모호한 경계지역을 확대, 제시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인위적, 배타적 경계(境界)를 경계(警戒)하고자 하는 의도의 메타포라고도 할 수 있다.



코디최 Cody choi(1961)
Andrea Angelidaki, Vutek printingon Mesh, 2001

작가와의 대화 :
7.11, 18, 25(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

- 7.11. 수 - 강홍구, 홍명섭
- 7.18. 수 - 이순종, 정동암
- 7.25. 수 - 김종구, 양주혜